



Hello! I am Sister Kathleen McGrady. I am celebrating my 60th Anniversary as a Sister of Charity this September. I entered the community on September 8, 1958, and made Final Vows on August 22, 1966.



I am the seventh of fourteen children. According to family history, my grandparents, parents, and siblings attended Saint John the Baptist School staffed by the Sisters of

Charity. Several years later my nieces and nephews attended Elizabeth Seton High School and Seton-La Salle High School, and my grandnieces and grandnephews attended Elizabeth Seton Childcare Center. The Sisters of Charity were always respected and loved as part of our family. I am very proud to say five generations were influenced and taught by the Sisters.

In high school I was active in the Mother Seton Club. At that time we purchased baby items and clothing to take to Roselia Founding, a Home for unwed mothers staffed by Sisters of Charity. I was impressed that the Sisters took care of these young girls and babies. I knew then that this was what God was calling me to do. I had, and still have, a great desire to work with young children.

My education background includes a BA in Sociology from Seton Hill University and a Masters in Hearing Impairment from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 taught primary grades for 11 years, Hearing Impaired infants and toddlers at DePaul Institute for 19 years, and was the Education Coordinator and Director of the Child Care Center for 17 years. I believe the community has given me the opportunity to use my gifts in serving families, especially young children.



My current ministry is service as Director of Seton Arts Service Corps. Seton Arts, a collaborative ministry of the Sisters of Charity and Seton Hill University, offers an enrichment program for young children in disadvantaged and oppressed areas. University scholars provide experience in the fine arts that will



influence the children for life. Saint Elizabeth Ann Seton was dedicated to serving others, especially woman and children living in areas of poverty and oppression. I am pleased that Seton Arts Service Corps is faithful to that mission.





안녕하세요! 케틀린 맥그래디 수녀(Sister Kathleen McGrady) 입니다. 저는 1958년 9월 8일 입회했고 1966년 8월 22일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이면 수도생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열 네 명의 남매들 중에 일에 일곱째예요. 저희 가족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형제들이 모두 우리 수녀님들이 계셨던 성 존



밥티스트 학교(Saint John the Baptist School)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조카들이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와 씨튼-라 살 고등학교 (Elizabeth Seton High School, Seton-La Salle High School)에 들어갔고 조카 손주들은 엘리사벳 씨튼 어린이 집(Elizabeth Seton Childcare Center)에 다녔어요. 저희 가족들은 사랑의 수녀님들을 항상 가족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답니다. 5대에 걸쳐 수녀님들께 배우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지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마더 씨튼 클럽에서 활동했어요. 그 때 아기들을 위한 용품과 옷을 사서 우리 수녀님들이 일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인 로셀리아 파운딩(Roselia Founding)에 보냈습니다. 수녀님들이 나이 어린 소녀들과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저는 씨튼 힐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청각 장애 교육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1년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드 폴 인스티튜트(DePaul Institute)에서 19년 동안 청각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담당했으며 17년 간 어린이집 교육 책임자 및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수도공동체를 통해 가정,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에 제가 받은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요.

현재 제 사도직은 씨튼 아트 서비스(Seton Arts Service Corps)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씨튼 아트 서비스는 우리 수녀회와 씨튼 힐 대학의 협력 사도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이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미술의 경험을 마련해준답니다. 성녀 엘리사벳 씨튼은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하고 압박 받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습니다. 저는 씨튼 아트 서비스가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답니다!

